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음 2월 9일) 제15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4.13 총선 D-27

# 도내 총선 공천 이번주 내 결말 예상

새누리, 가장 먼저 후보자 발표

더민주, 남은 군산 등 4곳 중 익산 갑, 오늘 경선결과 발표

국민의당은 3곳만 단수 확정 나머지 5곳은 경선 중

각 정당이 이번주 내로 도내 10개 선거구에 대한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 예정이어서 예비 후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정당의 경우 전략공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각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10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들을 압축·발표했다.

후보자는 전희재(전주 갑), 정운천(전주 을), 김성진(전주 병), 채용복(군산), 김영일(익산 갑), 박종길(익산 을), 김성균(정읍 고창), 김용호(남원임실순창), 김효성(김제 부안), 신재봉(완주진안무주장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산과 익산 갑·을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들을 내세웠다.

확정 선거구는 김운덕(전주 갑)과 최형재(전주 을), 김성주(전주 병), 김준진(김제부안), 박희승(남원임실순창), 하정열(정읍고창) 등 모두 6곳이다.

경선지역은 완주진안무주장수(박민수, 안호영)의 경우 이르면 16일 오후, 익산 갑(이춘석, 한병도)은 17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단수 및 경선지역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군산과 익산 을 선거구 2곳은 경선과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전략공천일 가능성이 크다.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당은 단연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이 확정된 단수공천지역은 정동영(전주 병), 유성열(정읍고창), 김관영(군산) 후보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날까지 발표된 국민의당 도내 경선지역은 총 5곳으로 전주갑과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다.

이 가운데 전주 갑은 김광수, 강동호, 이기동, 이관승 후보로 압축됐으며 전주는 장세환과 염윤상 김호서 조형철, 한명규 후보가 중앙당의 경선 일정 등을 기다리고 있다.

익산 갑·을 선거구는 늦어도 17일 저녁이면 최종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익산 갑은 배승철 전 도의원과 고상진 국회



“농업과 농민을 살리자”

정의당 농민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세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 농민 예비후보자들이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핵심농정’ 20대 총선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의원 유성열 전 보좌관 이한수 전 익산시장, 정재혁 (전)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총괄실장 등 4명이, 익산 을은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박기덕 (전)세종연구소 소장 등 4명이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남원임실순창(이영호, 김원종, 이성호)와 김제부안(곽인희, 김중희, 송강, 나유인) 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전주 을(장세환, 염윤상, 조형철, 김호서, 한명규)은 중앙당에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임정영, 이돈승, 김정호, 민경선)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최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수 압축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경선지역 후보발표 후 후보접수와 경선 방식 수용여부, 비용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최소 5일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이번 주에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 교통복지 ‘전국 최하위권’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사고율 9위 ‘불명예’

전북이 교통복지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발표한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70%)와 만족도 조사(30%)에서 경북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특히 여객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0개 시·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하순위로 평가됐다.

전북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주변 접근로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

고율이 각각 전국 9위로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저상버스 보급률은 5위, 교통복지 행정은 6위를 차지하며 버스회사와 관계 당국만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 매일 INDEX

2면 김중민 “총선 실패하면 당 떠날 수밖에”

4면 충남관광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 6 회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 대회

그동안 청소년 마술 동호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올해로 6 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과 전주매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6 (토) 15:00 ~

장 소 :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

대회 참가문의 : (G) 전주매일 문화사업국(063.288.9700)